

도로공사에 유사경유 공급 적발

석유관리원, 전국 도로공사 실태파악 나서 ... 등유 혼합해 공급

도로공사에 유사경유를 공급한 주유소가 적발됐다.

한국 석유관리원은 충청권과 영남권 등 11개 한국도로공사 지사에 등유를 섞은 유사경유를 공급한 주유소가 적발됐다고 7월24일 발표했다.

석유관리원은 경상북도 김천시에 있는 Y주유소가 도로공사에 경유와 등유를 혼합한 유사경유를 공급하는 현장을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로공사는 자가 주유시설에 경유를 공급받아 순찰 및 제설용 자동차 등에 사용하고 있다.

석유관리원 관계자는 “경쟁 입찰방식으로 석유제품을 납품받는 자가 주유시설과 건설현장용 대형 자동차에 유사 석유제품을 공급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며 “전국 도로공사 37사의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9/07/24>